관광관련 정부정책

제532호 (2016년 11월 둘째 주) 정책통계 · 평가실 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가을여행주간, 전국 주요 관광지 관람객 증가 ····· 2
[문화체육관광부]11월 7일부터 외래관광객 관광불편신고 전용사이트 개시 ····· 4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역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6년간 동결 합의 ····· 6
[부산광역시]부산시,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브랜드필름'제작 ····· 9

[해양수산부]가을여행주간, 전국 주요 관광지 관람객 증가

– 55개 관광지 관람객 9.5%, 제주도 입도객 11.9% 증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24일(월)부터 2주간 추진되었던 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국내 주요 관광지에 관람객이 증가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확대되는 등 국내여행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10월 24일(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관광지 매표소를 통해 수기로 조사된 관람객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요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한 수치에 따른 것이다.

▫ 우선 한국관광100선, 여행주간 집중 홍보지, 특별 개방지, 여행주간 프로그램 진행지 등 주요 관광지점 55곳에 대해 지난 10월 24일(월)부터 2주간의 관람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55곳의 방문객 총계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다만 지진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거제, 통영 등은 전년 대비 관람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4.6% 증가, 주요 관광지 주변 통행량도 증가

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관광지 주변 주요 톨게이트의 경우에도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주간 국내여행 총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 국립공원 입장객 13%

전국 14개 국립공원 매표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을 단풍 시즌을 맞이해, 국립공원 방문객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수치는 해당 국립공원의 특정 매표소 방문객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국립공원으로 파악했을 경우, 방문객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 입도객 역시 전년 대비 외국인 31%, 내국인 7.5%, 총 11.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주간 특별 개방지 대다수 증가로, 국내여행 견인 역할

여행주간 특별 개방지의 경우, 관람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행주간 동안 총 26개 지역 41곳의 특별 개방이 추진되었는데 영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관람객이 증가했다.

▫ 주요 유원시설 방문객 14.5% 증가, 여행상품 판매 실적 12.6% 증가

그 외 주요 유원시설(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대구이월드, 경주월드)의 방문객은 전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여행상품 판매 통계에서도 이용 인원 12.6% 증가, 판매 매출액 5.5%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 여행상품은 여행업협회 등록 주요 국내여행상품 판매업체 19개를 대상으로 조사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 여행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가을 여행주간이 국내의 우수한 여행지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내여행 참여 현황과 소비 지출액 등 온라인 설문조사와 거대자료(빅데이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주간의 더욱 자세한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6)| 등록일 : 2016.11.08)

[문화체육관광부] 11월 7일부터 외래관광객 관광불편신고 전용사이트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www.touristcomplaint.or.kr)'를 2016년 11월 7일(월)에 연다.

□ 2015년 한 해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의 불편신고 접수 건수는 전자우편 916건(86.3%),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접수 79건(7.4%), 엽서 61건(5.7%)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신고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외래관광객이 휴대폰(모바일)을 통해서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독립된 사이트가 없어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문체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금)에 개최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올해 중에 관광불편신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오늘 문을 여는 관광불편신고센터는 미국 · 일본 · 중국 등 외국에서도 'tourist/travel complaint(s)'를 사이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tourist complaint'를 주소명으로 정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되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 100만 건이 넘는 비지트코리아앱(Visit Korea)에도 탑재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불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를 통해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단계별 상황을 알려주는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신고자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불편을 해소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 이번에 개시되는 언어권별 서비스는 2015년 기준 중화권 526건(68.5%), 일본 185건(24.1%), 동남아·구미주 등 56건(7.3%)의 신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영어부터 우선 제공한다. 2017년에는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개국 중 언어 문제로 신고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국가의 관광객을 위해 러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나라는 외래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영어로만 서비스하고 있다.

□ 더불어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편신고 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는 접수된 불편신고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에서 2~3일 내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 처분이나 경찰 개입, 관

광상품 관련 불편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불편신고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경찰, 여행사 등과 협력해 처리하며, 그 기간은 평균 7일 정도 소요된다. 택시 관련 불편은 지자체 교통심의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개최되는 만큼, 처리기간이 최대 1개월이 소요된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래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 못지않게, 불편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소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의 해외 홍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88)| 등록일 : 2016.11.0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역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6년간 동결 합의

- 소유주·임차인·서울시·용산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 10일 체결
- 시 및 구, 소유주 수십차례 개별설득, 회의… 소유주 44인, 임차인 46인 만장일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 보호↑, 청년예술인 등 활동 기반 안정
- 주민·시·자치구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모범적 도시재생 모델로 타 지역 확산

□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이 '지역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섰다. 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개념 〉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각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초반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시와 자치구는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그 결과, 소유주 등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중한 동의가 모아졌다.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 지역은 서울시가 '15년 말 발표한「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대상 지역 6개(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등 마을공동체, 해방촌·성수동 등 도시재생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곳들로, 이 가운데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10일(목) 19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공청회에서는 사업 총괄계획가 한광야 동국대 교수의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토론 및 주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17년 초「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해방촌에서 '도시재생 현장 시장실'을 열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 시는 향후 소유주, 상인,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협약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 변호사·세무사와 구청 법률자문단의 자문 지원으로 협약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방지나 중재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 한편, 해방촌 신흥시장은 70~80년대 니트산업 활성화로 번성했지만, 지역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해방촌 오거리 시장이다.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돼 '15년 12월 8개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신흥시장 활성화'를 선정, 주

민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해방 아트마켓'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해방촌 지역(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면적 33만2천㎡)은 '15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월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약 100억 원(국비 50억, 시비 50억)의 공공지원을 투입,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 중 10억 원을 신흥시장 공적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도로정비 등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신흥시장 소유주들은 "처음에는 동의가 쉽지 않아 걱정도 했지만, 청년들이 활기를 잃었던 시장에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지역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재생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70)| 등록일 : 2016.11.09)

[부산광역시]부산시,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브랜드필름'제작

- 부산의 시간' 을 주제로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 숨가쁘게 발전하면서도 여유롭게 성장하는 부산의 이미지를 영상화
-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김홍희,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 아쟁연주자 장은교 등 시민모델이 참여! 부산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표현

□ 부산시가 부산의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담아낸 '브랜드필름'을 선보였다. '브랜드필름'이란 일반적인 CF나 홍보영상과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스토리화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이미지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최근들어 기업 광고에서는 자주 시도된 적이 있지만,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초로 제작했다.

□ 이번 브랜드필름은 한국관광공사, 삼성생명, 두산그룹 CF 등을 제작한 JK브라더스의 김종규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부산의 시간'을 주제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해석하였고, 숨가쁘게 발전하면서도 여유롭게 성장하는 부산의 모습을 매력적인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 또한, 영상에 사용된 배경음악 역시 부산의 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악과 양악을 크로스오버한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내 최고수준의 영화·드라마 OST 작곡자인 홍성규 음악감독이 맡았다.

□ 이번에 공개한 브랜드필름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김홍희,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마술사 이창민, 아쟁연주자 장은교 등 부산의 DNA를 가진 인물 20여 명이 부산을 대표하는 공간 곳곳에서 함께한 매력적인 순간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부산시 페이스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조형오, 김수지 부부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모델로 출연했다.

□ 영상은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부산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련되고 독특한 분위기로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인물들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는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내레이션과 카피를 대폭 축소하여 오직 부산만이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의 이야기를 영상을 시청한 전세계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부산시 김범진 시민소통관은 "부산이 가진 도시 경쟁력과 도시 위상에 비해 그동안 이에 걸맞는 대표적인 영상이 없었다"며, "이번에 제작된 브랜드필름이 전세계인이 부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도시가치를 세계에 전달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브랜드필름은 시 공

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DynamicBusa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부산시민은 물론 전세계인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소통기획담당 (051-888-1417)| 등록일 : 2016.11.07.)